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269

JCCT 2023-9-33

## 호주군 여성인력의 활용과 우리군에 주는 시사점

# A Study on the case of Application of Women's Personnel in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김인찬\*, 김종훈\*\*, 심준학\*\*\*, 이강희\*\*\*\*, 조상근\*\*\*\*\*, 박상혁\*\*\*\*\*, 홍명숙\*\*\*\*\*

**In-Chan Kim\*, Jong-Hoon Kim\*\*, Jun-Hak Sim\*\*\*, Kang-Hee Lee\*\*\*\*,  
Sang-Keun Cho\*\*\*\*\*, Sang-Hyuk Park\*\*\*\*\*, Myung-Sook Hong\*\*\*\*\***

**요약** 호주군은 1899년 제2차 보어전쟁에 참전한 이후,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하였다. 호주군은 전쟁의 장기화로 나타난 군인의 사회적 인지도 하락과 지속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인력의 지위와 역할을 지속 확장하였다. 제2차 보어전쟁 간 의료지원으로 시작한 여성인력의 역할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통신, 정비, 운전, 비밀문서 관리, 레이더 감시 등 전투 지원 임무로 확대되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각 군 참모총장은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전쟁과 평화유지 활동에서 여성인력의 활약은 2014년,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 직위가 여성에게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고, 각 군은 2030년까지 여성 비율을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구절벽과 병력 가용자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해 호주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여성인력, 병력부족, 역할확대, 시사점, 규정보안

**Abstract** After participating in the Second Boer War in 1899, the Australian Army participated in world wars such as World War I, World War II,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To overcome the decline in the social recognition of soldiers and the continuous shortage of troops caused by the protracted war, the status and role of female personnel were expanded. The use of female manpower, which started as medical support during the Second Boer War, expanded to combat support missions such as communications, maintenance, driving, secret document management, and radar surveillance during World War II. After the Vietnam War, the Chiefs of Staff of the Australian Army, Navy and Air Force established a committee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military, improved service conditions for female personnel and supplemented regulations so that they were treated as soldiers, not women, and reached a turning point in expanding the role of female personnel in the Australian military. As a result, all combat positions, including special forces, were opened to women in 2014, and a plan was establish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women in each service by 2030. As a result, all combat positions, including special forces, were opened to women in 2014, and the Australian Armed Forces set a plan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women by 2030. Like the Australian military, South Korea is also experiencing a demographic cliff and shortage of troops due to the continuing low birthrate problem. Through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the use of female personnel in the Australian military, we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ur military should go.

**Key words :** Female Manpower, Lack of troops, Expanding roles, Implications, Supplementing Regulations

\*정회원, 육군 21사단 참모장교 (제1저자)

\*\*정회원, 30기갑여단 참모장교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지상작전 교관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 1사단 17포병대대 군수지원부사관 (참여저자)

\*\*\*\*\*정회원,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미래기술

환경 예측·분석센터 연구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혁신속진연구담당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July 27, 2023 / Revised: August 25,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hmskj@daum.net

Dept. of Military Science, Army Future Innovation Research Center, Korea

## I. 서론

호주군 여성인력의 활용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에는 남성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전투를 제외한 간호 등 의료지원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전쟁의 장기화와 연속된 전쟁(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으로 남성들은 군대의 부름을 외면했고 군인의 사회적 인지도는 하락했다. 호주군은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서서히 여성에게도 기존에 남성만이 하던 임무를 부여했고, 전쟁에서의 여성의 활약으로 그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전쟁에서의 활약

호주군 여성인력이 최초로 참전한 전쟁은 1899년 제2차 보어전쟁(Boer War, 1899~1902)이다. 당시 전쟁의 주체였던 영국은 여성인력을 의료지원의 목적으로 참전시키는 것에 부정적이었기에 식민지였던 호주, 캐나다 등으로부터 여성인력을 지원받아 의료지원 임무를 부여했다. 호주는 1899년 여성 간호부대(The New South Wales Army Nursing Service Reserve)를 창설하고 1900년 14명의 여성인력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견하였다. 호주는 제2차 보어전쟁에서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 약 1만 6,000명을 파병하였으며 이중 여성인력은 60여 명으로 전쟁에서 다친 호주군과 영국군을 돌보았다[1].



출처: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08).

Australian Women in war.

그림 1. 보어전쟁에 최초로 파병된 14명의 여성인력

Figure 1. the first 14 women to be dispatched to the Boer War

호주군 여성인력은 제 1차 세계대전 기간에 약 2,300

명이 호주 육군 간호부대(AANS, Australian Army Nursing Service)의 일원으로 중동,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이집트, 미얀마 등지에서 복무했다. 전쟁 중 7명이 의료지원에 대한 유공으로 훈장을 받았으며, 23명의 여성인력이 전쟁 중 질병, 적의 포격으로 순직했다. 당시 호주군은 전쟁 참가를 위해 남성을 징집했는데 징집병의 나이는 최소 25세 이상이였다.

하지만, 자원입대한 육군 간호부대의 여성들은 21세 이하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를 위한 여성인력의 자원과 헌신은 호주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전쟁 이전 36.8만 명 수준이었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전쟁 이후, 43.6만 명으로 증가한 것은 군 여성인력의 활약으로 호주 여성의 지위와 역할도 확대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1]. 제2차 세계대전은 호주군 여성인력이 간호 이외의 임무를 수행한 첫 번째 전쟁이었으며 여성의 역할 확대로 6만 6,000명 이상이 참전했다. 육·해·공군의 간호부대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통신, 정비, 운전, 비밀문서 관리, 레이더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호주군 여성인력의 주요 활약상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제2차 세계대전에서 호주군 여성인력의 활약  
Table 1. Performance of Australian Women in World War II

기간	주요 부대	임무/인원
1941-1947	·WAAAF (Women's Australian Auxiliary Air Force)	·교환수, 정비, 통신 등 ·27,000여명
1941-1947	·AWAS (Australian Women's Army Service)	·장비 운전, 레이더 감시 등 ·24,000여명
1942-1948	·WRANS (Women's Royal Australian Naval Service)	·비밀문서 관리, 조리 등 ·3,000여명
1942~	·AWLA (Australian Women's Land Army)	·식량의 생산 보급, 조리 ·3,000여명

당시 군 여성인력의 대부분이 자원입대했기 때문에 봉급이 없거나, 남성 봉급의 절반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전 중 130여 명이 전사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 그 결과 호주 정부는 1942년, 여성 자원 봉사자들의 집합체였던 AWLA를 공식 기구로 인정했으며, 1994년에는 훈장을 수여하며 그 공로를 인정했다[1].



출처: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08).  
 Australian Women in war.

그림 2.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인력 모집 포스터  
 Figure 2. Poster for recruiting women during World War II

또한, 호주군 여성인력은 6·25전쟁에서 140여 명, 베트남 전쟁에서는 250여 명이 간호를 주로 하는 의료지원 임무로 참전했다. 그 결과 당시 호주 사회 또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와 동시에 군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1].

### III. 여성인력 개방에 대한 논의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의 패배는 그 자체로도 충격이었으나 호주 국방부와 호주 사회에 유의미한 논쟁 주제를 던졌다. 호주군은 베트남보다 신체적·체력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었던 미군의 패배에 주목했고, 이전까지 호주군과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남성에 비해 부족한 여성의 신체적·체력적 능력으로 인해 여성에게 모든 직위를 개방할 수 없다.” 라는 논리가 약화되며 자연스럽게 여성의 역할 확대로 이어졌다[2].

그 시작점으로 1975년 호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에서 임신한 여성은 전역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함과 동시에 남성의 70% 수준이었던 여성의 봉급을 동일하게 설정했다. 출산 이후에도 군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12주간의 유급 출산휴가와 1년간의 무급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대우하기 위해 70년대 후반에는 육군과 공군의 여성부대를, 1985년에는 해군의 여성부대를 해체하여 호주 국방군(Australian Defence Force)으로 통합했다[2].

1983년, UN의 여성 차별 철폐에 대한 권고(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호주 정부가 수용

하면서 성별, 결혼 여부와 임신의 여부로 직업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SDA, Sex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였다[2].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는 범이었기에 군에서 이전까지 남성에게만 허용된 1만 7,000개의 직위가 여성에게도 개방되어 동등한 경쟁을 펼칠 기회가 마련되었다. 국방부는 전투 직위(보병, 포병, 기갑, 폭발물 제거, 전투기 조종사, 잠수함 승조원 등)를 여성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정부는 논의 끝에 여성에게 전투 직위를 제한하는 국방부의 조치를 차별금지법의 예외로 인정하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다[2].

그러나, 여성의 군 진출은 계속되어 호주 국방 사관학교(ADFA, Australian Defence Force Academy)에 여생도 입학(1986), 최초의 여성 조종사(1988)탄생, 호주 총리 주관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1988) 등이 이루어졌고, 1989년에는 호주군에서 여성인력의 비율이 10%를 초과하며 전투 직위도 여성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2]. 각 군의 상황과 부대의 상황에 따라 여성에게 전투 직위를 개방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그림 3>과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여성에게 전투 직위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우세했다.

Women in Combat survey:  
 Are you in favour or against women being allowed to serve in combat roles in the Australian Army?

ATTITUDE	TOTAL (%)	SEX		AGE		
		M (%)	F (%)	18-34 (%)	35-49 (%)	50+ (%)
Strongly in favour	34	33	35	43	39	24
Partly in favour	29	28	30	38	29	20
<b>Total in favour</b>	<b>63</b>	<b>61</b>	<b>65</b>	<b>81</b>	<b>68</b>	<b>44</b>
Partly against	11	10	12	6	12	15
Strongly against	20	23	17	8	15	35
<b>Total against</b>	<b>31</b>	<b>33</b>	<b>29</b>	<b>14</b>	<b>27</b>	<b>50</b>
Uncommitted	6	6	6	5	5	6

NewsPoll survey: The Weekend Australian, June 9-10 2001

출처: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08).  
 Australian Women in war.

그림 3. 설문결과  
 Figure 3. Survey Results

2011년, 호주 국방부 장관은 특수부대를 제외한 모든 전투 직위를 여성에게 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2014년에는 특수부대까지 개방되며 여성들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아래의 <표 2>와 같이 군에서의 역할을 확장했다.

표 2. 2000년대 호주 여성인력의 역할 확대  
Table 2. Expansion of the role of Australian women in ADF in the 2000s

년도	직위 및 이름
2000	·최초의 해군 함장(Jan Noonan) *비(非) 전투함
	·최초의 잠수함 승조원(Louisa Young)
2003	·최초의 공군 소장 진급(Julie Hammer)
2005	·최초의 해군 준장 진급(Robyn Walker)
	·최초의 해군 군종목사(Christine Senini)
2006	·최초의 공군 전투비행단장(Linda Corbould)
2007	·최초의 육군 소장 진급(Elizabeth Cosson)
	·최초의 해군 전투함장(Michelle Miller)
2011	·최초의 해군 소장 진급(Robyn Walker)
	·최초의 육군 사단장(Simone Wilkie)

#### IV. 현대의 여성인력 활약상

2022년 6월 기준 호주군의 총병력은 약 8.9만 명(정규군 5.8만 명+예비군 3.1만 명)으로 여성인력은 약 1.8만 명으로 전체의 약 20.1%(육군: 15.11%, 해군: 23.49%, 공군: 26.14%)를 차지하고 있다. 각 군은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여성인력 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육군은 2025년까지 18%, 해군은 2023년까지 25%, 공군은 2030년까지 35%까지 높일 계획이다[3]. 특히, 호주군 여성인력은 아래 <표 3>과 같이 평화유지(Peace-Keeping Operation)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그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표 3. 호주군 여성인력의 주요 평화유지 활동  
Table 2. Major Peacekeeping Activities of the Australian Women

년도	국가	임무
1947	인도네시아	· 업저버
1990 ~ 현재	이라크	· UN의 이라크 제재 이행
1991	이라크	· 인도적 지원
1991 ~ 1994	서부 사하라	· 통신지원
1991 ~ 1993	캄보디아	· 통신, 선거지원, 질서유지
1992 ~ 1995	소말리아	· 인도적 지원

1994 ~ 1995	르완다	· 의료지원, 전투근무지원
1994 ~ 2003	솔로몬제도	· 군수지원, 정전협정 준수 여부 감시
1994 ~ 1995	아이티	· 치안유지
1999 ~ 현재	동티모르	· 도시재건, 치안유지
2005 ~ 현재	수단	· 군수지원, 업저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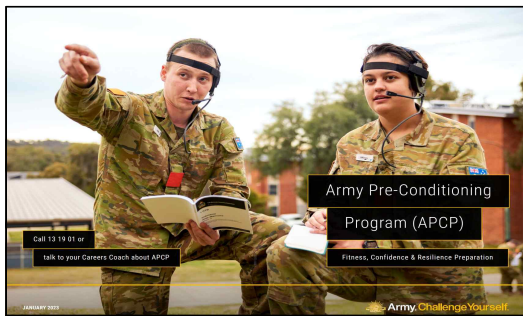
호주군은 1947년 인도네시아 분쟁지역에 업저버를 파견하며 평화유지 활동을 시작했고, 여성인력은 1991년, 이라크와 쿠웨이트 지역(MIF, Maritime Interception Force)에 파병되어 첫 평화유지 활동을 시작했다[3]. 이후, 서부 사하라, 캄보디아, 소말리아, 르완다 등 세계 각지에 총 21차례 파병되어 현지인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부터 선거 및 법률 지원, 도시 질서 유지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례로 1993년에는 서부 사하라에 파병된 Susan Felsche 육군 소령이 항공기 사고로 순직하기도 했다[3].

현재, 호주군은 아래의 <표 4>와 같이 여성 인력의 입대에 있어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고 있다(해군은 완전 동일, 육군과 공군은 일부 상이). 성별의 차이로 체력 요구 수준이 다른 우리나라와는 달리, 호주군은 ‘전투 직위(Combat Roles)’와 ‘전투 지원 직위(Combat Support Roles)’로 구분하여 다른 체력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4].

표 4. 입대 시 전투 직위(Combat Roles)의 체력 요구 수준  
Table 4. Fitness Requirements for Combat Roles

구분	체력검정 종목
육군	· 윗몸일으키기 : 45회 이상 · 팔굽혀펴기 : 15회 이상 *여성은 8회 이상 · 왕복달리기 : 7.5점 이상
해군	· 윗몸일으키기 : 20회 이상 · 아래 종목 중 하나를 자유 선택 - 2.4km 달리기 : 16분 이내 - 5km 군장뺀걸음 : 44분 이내 - 왕복달리기 : 5.5점 이상 - 500m 자유형 : 14분 30초 이내
공군	· 윗몸일으키기 : 20회 이상 · 왕복달리기 : 6.1점 이상 *여성은 5.1점 이상

또한, 체력의 부족으로 입대를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군사훈련(IMT, Initial Military Training) 전 7주간의 '사전 준비 프로그램(APCP, Army Pre-Condition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APCP를 수료한 인원들은 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할 자격이 된다. 이는 체력 검정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호주군이 지향하는 '다양성(성별과 무관하게 신체적 이유로 체력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함)'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4].



출처: <https://www.defencejobs.gov.au/about-the-adf/women-in-the-adf>

그림 4. APCP 프로그램  
Figure 4. APCP Program

## V. 결론 및 시사점

전술한 호주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여성인력의 확대이다. 우리 군도 기술행정병과 위주의 여성인력 운용에서 벗어나 무기체계의 발전속도에 맞춰 호주군처럼 전투직위에 더 많은 여군들을 배치하고 현재의 고정된 인력 편성비율을 확대하여 여성인력의 비율을 과감하게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군 내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 문화가 변화해야 하며 여성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토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호주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머리를 맞대고 여성인력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고, 호주 총리까지 나서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노력을 했다.

셋째, 여성 인력들의 다양한 전투 경험 축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즉, 여성인력의 해외파병, 읍저버 등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호주군의 여성인력

은 1900년대 초 보어전쟁부터 제1·2차 세계대전,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전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경험했다. 우리도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여성인력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호주군은 여성을 전투 직위에 배치할 것이냐? 의 문제를 두고 약 30년간 논쟁을 벌이며 전투 실험, 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투 직위를 개방했다.

결국, 우리도 현재의 '횡단연구'에 그치고 있는 여성인력과 전투 성과에 대한 실험을 '종단연구'로 확장하고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군과 사회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건전한 담론을 형성하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1]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08). Australian Women in war.
- [2] Christine Reghenzani, Women in the ADF: six decades of policy change(1950 to 2011), , 2015.
- [3] Australian Defence Force. (2022). Defence Annual Report 2021-2022.
- [4] <https://www.defencejobs.gov.au/about-the-adf/women-in-the-adf>